

News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30일 코스피 IPO 신청

서울경제

케이뱅크, 30일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신청할 계획… 통상 4개월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해 11월까지는 상장 완료할 방침

북 클로징 기간 고려… FI들과 2026년까지 상장 완료하기로 약속한 것을 조기에 이행하는 측면도 존재… 대어들 나오면 IPO시장 분위기 반전 가능하다는 기대 제기

15조 늘리려 했는데 8조 '뚝'…5대은행 가계대출 '급후진'

머니투데이

5대 은행의 2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0조 6,265억원으로 작년말 대비 1.20% 감소… 이달 남은 영업일수까지 대출이 줄면 올 들어 6개월 감소가 유력 수개월째 역성장하는 배경으로 금리가 대세 상승기로 완전히 접어든 영향이 커… 4% 안팎의 가계대출 성장 전제로 올해 사업계획 짰던 은행들에겐 비상

與, 은행 예대마진 공시 분기→월 단축해 대출금리 빠른 상승 막는다

조선비즈

국민의힘, 28일 예대마진 운영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현재 분기별 공시하는 예대금리차를 월별 및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하는 방안을 당국에 요청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야 한다는 판단 깔린 것으로 해석… 또한 은행이 고통 분담할 여력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

금감원, 은행권 예대금리 산정 문제 포착…다음 달 점검 결과 발표 예정

이투데이

금감원, 작년 12월부터 약 두 달에 걸쳐 6개 항목에 대해 국내은행 예금·대출금리 운영현황 점검… 19개 은행 모두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 항목에서 문제있다고 평가 점검 결과 바탕으로 다음달에 개선안 발표 예정… 일각에서는 점검 결과 발표 늦어진 것을 두고 정치적 분위기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 제기

손보사, 금리 인상에도 자산 수익률 부진…장기보험의 합정

데일리안

올 1분기 기준 5대 손보사의 평균 운용자산이익률은 3.24%로 전년동기대비 0.10%p 하락… 삼성화재 2.71%, 현대해상 2.89%, DB손보 3.39%, 메리츠화재 4.09% 금리 상승에도 손보사 자산운용에 반전은 없어… 장기보험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그럼에도 높은 수익성 기대할 수 있어 장기보험 둘러싼 손보사들의 경쟁은 치열

계속되는 금리인상에…3월 보험사 RBC비율 작년말比 36.8%P ↓

머니투데이

3월말 보험사의 RBC비율은 작년말대비 36.8%p 하락… 크게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금리상승이 꼽혀… 금리상승에 따른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20조 7,000억원 감소 회사별로는 MG손보 69.3%, DGB생보 84.5%로 10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향후 금리 상승 추이로 볼 때 RBC비율이 당국 권고치 미만으로 떨어질 우려도 제기

이복현 금감원장 "증권업, 유동성 리스크 관리 만전 기울여야…선택과 집중 감독"

한국금융신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8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CEO 만나 리스크 관리 주문…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통해 투자자 피해 유발행위 관련 엄중 조치 사모펀드 시장 감시 체계 견고히 해서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예방하겠다는 언급도… 유동성 관리 주력도 강조

증권사 MTS 새판짜기…통합 플랫폼 속도전

데일리안

미래에셋증권, 이달 중 기준 MTS 통합한 차세대 MTS 출시 예정… 하나의 앱에서 국내주식, 해외주식, 연금 등을 모두 투자하고 관리 가능 증권사들의 간편한 원앱 열풍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 중… 키움증권도 기존 MTS 개편한 차세대 통합MTS 출시 앞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